

이총리 “현대차 근로자들 대승적 협조 다시 한번 부탁”

당정 ‘광주형 일자리’ 막바지 후방지원 총력

당정은 13일에도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협상 타결을 위한 후방 지원에 적극 나섰다. 지역노동계가 현대자동차 노조와 민주노총 등의 강한 압박으로 주춤하고 있으며, 현대차 역시 계속되는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의 수정 주문에 피로도를 느끼면서 타결보다 무산의 분위기가 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대차 노조, 민주노총을 제외한 정치·경제 부문 주체들이 모두 광주형 일자리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밤부터 시작되는 지역노동계, 전문가, 광주시 등의 투자유치추진단 제3차 회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그 전에 정부, 더불어민주당 등이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지난 12일 정진형 현대차 사장을 시작으로, 당정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분위기가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이 같은 당정청의 파격적인 지원에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과 없이 무산될 경우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선 6기부터 4년 간 공을 들였던 광주형 일자리가 결국 현실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비난은 물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미래 일자리 창출 시스템으로 확장하려는 문재인 정부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고 가장 절

필요한 자원 내년 예산안 반영
국회심의 시한내 마무리 당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협상 타결되면 SOC 적극 지원”

실한 것의 하나가 상생의 실천인데, 광주형 일자리는 그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실현하는 노동혁신의 모델이자 노사상생의 모델”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인건비를 낮추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의 자동차공장 설립 방안은 지역 노·사·민·정의 4년에 걸친 고심의 결실이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초당적 지원에 뜻을 모았을 정도로 중앙정치와 정부의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로서는 어려움과 걱정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작금의 심각한 고용 위축과 자동차산업 부진, 그리고 형편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려해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현대자동차 사측에게도 투자협상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대차 노사의 용기있는 결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동차 부품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고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국회의 예산심의의 시한 안에 문제들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현대자동차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지난 12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상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형 노사 상생의 일자리 모델이라는 욕망을 만들어 내는 산고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협상만 타결되면 민주당과 중앙정부는 광주형 일자리에 필요한 공공주택, 생활편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노사간 새로운 협력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는데 합의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와 현대차는 빛그린산단 내 62만8000㎡ 부지에 광주시 590억원, 현대차 530억원 등 자기자본 2800억원 그리고 차입금 4200억원을 투입해 1000cc 미만 경형SUV를 연간 10만대 이상하는 것을 골자로 투자협약을 진행 중이다. 부지와 공장 설비를 합쳐 고정자산은 5000억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 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1만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대통령 아세안·APEC 참석 출국 5박 6일 정상외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떠나 싱가포르 이동, 16일까지 머무르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16일에는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한 뒤 18일 5박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아세안과의 관계 격상을 통한 신남방정책 가속화에 힘을 쏟는다. 우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및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과 만나는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로 했다. 14일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환승인사들과 함께 전용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 동반자 협정(알집-RCEP)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주요국들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환기시킬 계획이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이날 국무총리(오른쪽)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기업인 100여명과 내달 대규모 방북 추진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송영길 위원장 주도...“북과 협의 거쳐야”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 의원·사진)가 다음달 초 국내 기업인 100여명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13일 “송영길 위원장이 이사를 만들기 위해서 방북하는 게 낫겠다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 기업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또 “통일부와 협의 거쳐야 한다”며 “북북제재 등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므로 특위 위원들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동북아특위는 이번 방북을 남북 경제협력에 위한 ‘실무 교류’로 정하고,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때 수행한 대기업 총수들은 제외한 중소기업 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을 동행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민주당 동북아특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와 방북 기업인 모집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 초청장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송영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북쪽에서 초청장이 와야 갈 수 있기 때문에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경제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방북 의사를 밝힌 여당에 빠르게 화답하면 연내에도 방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민주당은 다음달 중순 이전 방북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인 100명에 국회의원과 취재진 등을 포함한 150명 정도의 대규모 방북단 구성을 희망하고 있다.

이번 방북이 성사되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10월 평양 방문 뒤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지난 10월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평양)가 노무현재단 주관이었다면, 동북아특위 차



원의 방북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본격적인 남북 교류가 된다.

앞서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확대를 위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단위의 평화와 경제협력에 구상할 당내 조직으로 동북아평화협력특위를 공식 출범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일 출범식에서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해서 서로간 교류와 왕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에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송영길 위원장도 “그동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을 이뤄내겠다”며 특위 차원의 방북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푸~우~욱~

무안 ↔ 양양 취항 기념 항공 특가 77,000원 !!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매주 3회 정기편 운항(화(3박4일) / 금, 일(2박3일))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기타큐슈 에어텔 3일 299,000원
- 기타큐슈, 뷔부,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폭격] 499,000원-
- 기타큐슈, 뷔부,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폭격] 599,000원-

※ 불포함사항: 무안공항 수송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나가노 북알프스(마츠모토) 직항 전세기

10월 2일(화) ~ 10월 20일(토)

- 10월 2, 9, 16(화 출발) 북알프스, 가미코지 1,198,000원-
- 3박4일(토 출발)[실속] 998,000원- [폭격] 1,098,000원-
- 4박5일 골프(화 출발) 998,000원-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준특급] 699,000원- ◆ [특급] 799,000원-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매주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오전출발
- [실속(세미패키지)] 오사카, 나라, 교토 699,000원-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3박4일 899,000원-

무안 ↔ 다낭 직항전세기 [매주 화(3박4일) / 금(3박5일)]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념품, 배개, 비디오 상영

[골드] 다낭, 후에, 호이안 4일 599,000원- /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후에, 호이안 4일 799,000원- / 5일 969,000원-

무안 ↔ 양양 취항 기념

양양 항공 특가(편도 총액) 77,000원!!

- 8/10(금) ~ 9/22(토) 매주 금, 토, 일 출발
- 9/29(토) ~ 10/27(토) 매주 월, 금, 일 출발
- 10/28(일) ~ 12/31(월) 매주 금, 일 출발

[추석 연휴] 무안 → 돛토리 직항 전세기

9월 23일(일) ~ 9월 27일(목), 총 5회 운항

- 9/23(일), 24(월) 2박3일 998,000원(ALL 포함)
- 9/25(화), 26(수), 27(목) 2박3일, 3박4일 63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9월, 10월(매주 월, 월, 목, 금 출발)

- 대만, 화련, 지우펀, 야류, 서문정 3박4일 799,000원-
- 대만, 서문정, 지우펀, 야류 2박3일 629,000원-

광주 ↔ 제주도

- 2박3일(주중) 249,000원-, 2박3일(주말) 324,000원-

남방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통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비용 가입(여행비용: 1인당, 국내항공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거 요금: 환불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인원 여행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서 작성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항공료, 기차/기타/호텔, 선대관,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